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통한 조선시대 서원 식물의 가치 A Value of the plants Seowon in the Chosun dynasty through the O.U.V

이 원 호*, 이 소 현*, 신 현 실**
국립문화재연구소*, 북경대학교 도시 및 환경과학원**

Lee Won Ho, Lee So Hyun*, Shin Hyun Si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llege of Urban and Environmental Sciences of Peking University**

요약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전국 서원 6개소 조정유적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식물유산과 관련하여 진정성 평가항목 7가지에 부합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과연 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 여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 서론

문화유산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의미가 약해져 사라진 것, 반대로 역사적·기능적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증대해져 오랜 세월 동안 귀중하게 보존되어 온 것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띤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각 시대마다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최근 각 국가에서는 ‘보호’와 ‘활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국의 문화유산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보편적인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재 내에 존재하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 UNESCO의 기준에 준하여 국가적인 범위나 그보다 작은 범위에서 유산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들을 지정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현재 한국은 10개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등재 기준을 살펴보면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이 있는데, 진정성은 유산의 속성과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간의 연결성과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결성이 사실 그대로 표현되어야만 그러한 속성들이 유산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산은 (등재신청 기준에서 인정되었듯이)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믿을만하게 표출된다면 진정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82항).”[3] 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사림(士林)에 의해 지방에 설립된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은 아직도 제향 기능이 살아있는 문화재로써 수백년간 전수되어 온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전통 조정양식 중 정형적인 식재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2012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확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조경의 고유한 양식을 지닌 서원의 공간구조 속에 나타난 식물유산을 통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학술적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현재 사적으로 국가지정된 문화재 중 시대적으로 오래되고 조정유적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전통 조정유적이 존재하는 서원 6개소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종 고문헌자료, 기초자료 분석을 통하여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적 공간 및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도출했다. 또한 기본 공간구조 속에 나타난 식재유형을 파악한 후에 식물과 공간구성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진정성 평가항목에 적합한 구성요소를 파악해보았다.

III. 연구결과

보편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항목은 형태 및 디자인, 재료 및 내용물, 사용 및 기능, 전통·기술·관리체계, 위치 및 주변 환경,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총 7개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1. 형태 및 디자인

6개 대상지 조정 공간은 서원의 주된 시설이 밀집해 있는 본질적 공간인 경내구역과 각 부속시설물이 위치한 서비스공간 즉, 경외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수목의 위치는 수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보였는데 향나무, 배롱나무, 오죽 3종류는 주로 서원 경내에 위치하며, 느티나무, 버드나무는 주로 서원 경외에 위치하였다. 서원의 경내·경외 구분 없이 위치한 수종으로는 향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등으로 서원 조정식재에서 가장 많이 출현되는 대표적 수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료 및 내용물

꽃이 아름다운 배롱나무, 목련이나 가지의 공간구성이 아름다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미적특성을 강조한 수목이 주로 출현하였으며, 소나무, 매화나무, 대나무, 동백나무 등 성리학의 정통성을 갖고 서원의 특성에 맞게 군자상상과 절개를 나타내는 수종도 나타났다.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수종은 중국원산의 느티나무와 배롱나무로 조선시대 원에서인 양화소록, 산림경제, 화암수록에는 외래식물임에도 과거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3. 사용 및 기능

소수서원 경외에 위치한 취한대는 이황이 송백(松柏)과 죽(竹)을 심어 풍류를 즐긴 곳이라고 하며, 옥산서원 고직사와 무변루 사이에 조성된 담장 곁에 식재되어있는 엄나무의 경우 식용 또는 약용으로 쓰기 위해 식재하여 그 가지와 잎을 활용했다고 한다. 필암서원 정문 전방에 식재된 수령 200년의 은행나무는 서원 진입공간으로서 홍살문·하마비와 함께 보존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병산서원의 경내는 경사지를 완만한 평탄지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단을 축조하였는데, 지반 안정화를 위해 발생된 단은 화계라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후방 소나무 숲에는 산신제를 올리던 제단이 현존한다.

4. 전통·기술·관리체계

옥산서원 북쪽 담장 밖 환경사지에 위치한 은행나무는 서원 건립 당시 노수신이 식재한 것이라고 하는데, 수령은 20~30년 정도로 추측되므로 노수신이 심은 은행나무의 후계목 또는 그 유지를 좇아 식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산서원의 경우 배향인물인 퇴계 이황이 생전에 매우 좋아했던 매화나무를 주된 식재수종으로 선택하여 경관을 가꿔가고 있으며, 필암서원에는 오래된 수목이 없는 대신 건물의 벽화와 가구의 단청에 사군자 이외에 소나무, 포도, 소철, 파초, 연꽃 등의 식물그림이 그려져 있다. 병산서원은 배향인물인 류성룡이 생전에 좋아하던 수목이라 하여 지속적으로 배롱나무를 주종으로 하는 식재를 해오고 있다.

5. 위치 및 주변 환경

지형은 개별 문화재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6개 대상지의 경우 주변 지형 요소로 산, 평야, 강, 천, 계류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산은 모든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다. 서원의 위치는 산록, 계곡, 능선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산지계곡형, 산지산록계곡형, 평야산록형, 산지평야능선형, 산지능선형 등 총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소수서원과 옥산서원은 산지계곡형이고, 도산서원은 산지산록계곡형, 필암서원은 평야산록형, 도동서원은 산지평야능선형, 병산서원은 산지능선형에 입지해 있다.

6.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 유산

단곡 광진의 '백운동상죽(白雲洞賞竹)', '종죽기(種竹記)'는 소수서원 뜰에 있던 오죽에 관한 기록이며, 사당 주변에 식재된 대나무를 훼손시키는 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1614년 정월 '원중입의'도 전해진다. 또한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지락재 아래에 조성된 연못인 탁정지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와 계수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철쭉을 심어 경치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실려있는 '운원잡록'도 있다. 옥산서원은 자연 속으로의 귀의와 침잠을 통하여 배향인물인 이언적의 학문과 사설, 인생과 자에 대한 도학적 사유를 읊은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이 전해진다. 필암서원은 1975년 변시연이 저술한 '서원중수기'에는 나무를 심어 서원의 모양새를 크게 개선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7. 정신 및 감정

소수서원의 경내 사당공간과 강학공간 주변에는 검은 대나무, 옥산서원의 담장 밖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는 공부하는 유생들의 마음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경책하거나 서원의 규율을 어긴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있었다고 전해진다. 도산서원의 경우 그윽한 운치를 숭상하기 위하여 나무와 꽃을 심은 뜰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했다고 한다. 또한 배향인물인 이황은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기도 하면서 평범한 마음으로 사물의 근원과 만남을 꾀하는 이치를 궁구했다고 한다. 도동서원 정문인 수월루 전방에는 수령 400년의 은행나무 거수가 위치하는데 이는 한강 정구가 1607년 도동서원을 건립하고 배향자인 김굉필을 기리기 위하여 식재하였다고 한다. 병산서원 경내에 식재된 무궁화는 강학기능이 끝나고 더 이상 유생들을 받지 않게 되던 1920년대에 나라를 생각하며 문중에서 강당 전방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IV. 결론

선조들은 자연 속에 수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이력을 표현하는 문화적 배경을 뒤로하고 1960년~70년에 실시된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대체적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조정유적의 원형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산서원의 경우 우리나라 서원 최초로 정비 사업이 실시된 곳이기도 하다. 본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지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적을 구성하는 요소는 단위 공간으로서 서로 조화되도록 정비하여야 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는 조정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조정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전통 기술의 계승 및 재생 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사적지 조정정비 기준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2] 진정성과 완결성에 기초한 명승 보호구역의 타당성 검토, 류제현, 2013, 미출판
- [3] 실무자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신청 매뉴얼, 문화재청, 2009
- [4] 세계유산제도의 이해와 익산의 문화유산, 이상해, 2001